

Q&A

Questions, Answers

- * “우리 회사에 지원한 이 친구는 어떤 친구일지”
- * “어떤 생각으로 지원했는지, 어떤 직종, 직무를 원하는지”
- * “입사한다면 회사/개발팀을 위해 무엇을 노력하고 싶은지”

채용을 담당하는 실무담당자 분들이 궁금해하실만한 여러가지 질문에 대한 설문지를 작성했습니다.

정 순 구 (JUNG SOON GU)

github : <http://github.com/alpha3002025>

email : alpha300uk@gmail.com

작성일: 2026/02/19

Q1

입사한다면 회사/개발팀을 위해 무엇을 노력할 것인가요?

kubernetes 가 갖춰지지 않은 환경이라면 애플리케이션의 스케일링 그룹의 구조를 kubernetes 를 이용한 스케일 아웃에 용이한 구조로 점진적으로 전환하는 업무를 맡는다거나, 이미 kubernetes 가 잘 적용된 EKS 등의 클라우드 쿠버네티스 환경이라면, 이미 어느 정도 습득한 지식들을 바탕으로 서비스 개발에 힘을 보태고 싶습니다.

자격증 갱신 역시 꾸준히 해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Terraform Associate 자격증을 준비 중이며, CKA, ICA 자격증은 내년에 갱신해야 합니다. 자격증은 끊임없이 갱신할 예정입니다. 사내에 자격증을 처음 취득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접근하고, 시험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어떤 것들을 하는지 등 자신감을 가질수 있게 도와줄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을 맹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재취득이나 갱신과정을 계속 하면 처음부터 한번씩 다시 훑어볼수 있는 재숙련의 과정을 거칠수도 있고 목표를 가진상태에서 준비를 해나갈 때 효율적으로 시간을 관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자격증 갱신 역시 꾸준히 계속 해나갈 예정입니다.

Q2

우리회사에 지원한 이유와 원하는 업무 발전방향에 대해 설명하세요.

'kubernetes 를 도입하려 하거나, 이미 도입한 곳에서 일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kubernetes' 를 도입을 처음부터 시작하는 곳 이어도 마음에 들 것 같고, 이미 구성되어 있지만 'kubernetes' 에 익숙한 백엔드 개발자를 아직 구하지 못한 환경이어도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에 포함된다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Q3

개발업무와 관련된 취미가 있다면 설명해주세요.

퀀트 데이터 분석을 개인적으로 스터디 중입니다. python 의 dataframe, numpy, matplotlib 을 현란하게 다루면서 백테스팅을 하는 교재를 보면서 '퀀트이론'보다 python 구현부를 유심히 보게되었고, numpy, dataframe 을 이용해서 여러 통계관련 코드들이나 수익률 평가하는 코드들을 봤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통해 익숙해진 skillset 들을 회사 업무에서도 배치 등을 통해 통계작업을 수행해야 할때 Java 로는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어느 정도의 해결책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Q4

공백기간을 1년 가까이 가지게 된 이유

직업을 구한다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에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경력이 어느 정도 되었고 기술스택이 어떤지 등과 같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모습은 아무 의미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실제 현업에 필요한 요구에 맞춰서 저도 조금 변화해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에서부터 취업 준비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공백기간 동안 CKA (Certified Kubernetes Administrator), ICA (Istio Certified Associate) 자격증을 취득하고, ‘dailyfeed’라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포트폴리오로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실무에 가까운 terraform, EKS 관련된 지식이 필요해 terraform, EKS에 관련된 가이드 문서와 예제 프로젝트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시간이 점점 흐르면서 입이 바짝 마르기도 하고 긴장되기도 했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목소리만 크고 자신감 넘치는 구직자가 되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더 준비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Q5

공백기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공백기간 동안 저는 휴일없이 매일 6시까지 공유오피스 1인실에 출근해서 매일 17시 ~ 19시 사이에 퇴근을 했습니다. 자격증을 취득했어도 그 다음 목표는 어떻게 해야 취업에 잘 맞을지 방향성을 고민했고, 자격증 시험에 불합격 통보를 받아도 자고 나서 다음날 똑같이 새벽 6시에 공유오피스에 와서 다음 시험일정을 계획하고 준비해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Q6

본인이 생각하는 본인만의 강점

내성적인 성격으로 참을성 있게 무언가를 끝까지 해내려 하는 것이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Q7

원하는 회사 분위기

내성적이고, 개인주의 성향의 사람들이 많은 개발팀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경험상 목소리가 큰 사람이 많은 조직은 그 만큼 자주 혼들리기도 했고, 좋은 방향이든 안좋은 방향이든 신중하지 못한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지는 것을 자주 봤었기에 가급적이면 내성적인 팀원들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면서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취업을 위한 문서이기에 담지 못한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외의 궁금한 점들은 있으시다면, 면접자리 까지 가게 된다면, 면접자리에서 궁금한 이야기들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